

덴마크 식량 생산

-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이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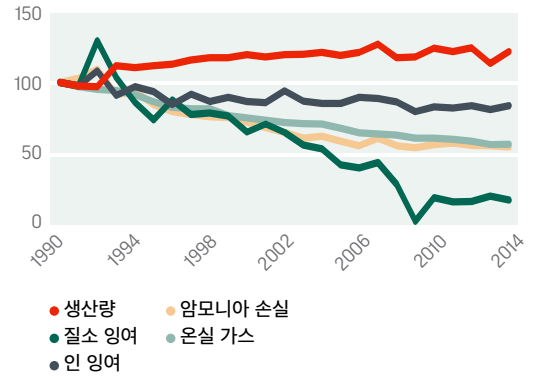
덴마크 식품 생산 - 최대의 자원 효율성 달성

덴마크는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식품 생산을 지향한다. 1차 산업 부분의 경우 1990년 이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지만 오염 물질의 배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덴마크의 도축장은 평균 물 소비량을 80%나 절감했으며, 오늘날 돼지 1마리 당 약 200리터(약 50 갤론)의 물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양조장인 칼스버그는 2010년에서 2016년 1리터의 맥주 생산에 사용되는 상대적 물 소비량을 약 9% 절감했다.

생산 및 환경영향평가 지수 1990 = 100



출처: 덴마크 농업 및 식품위원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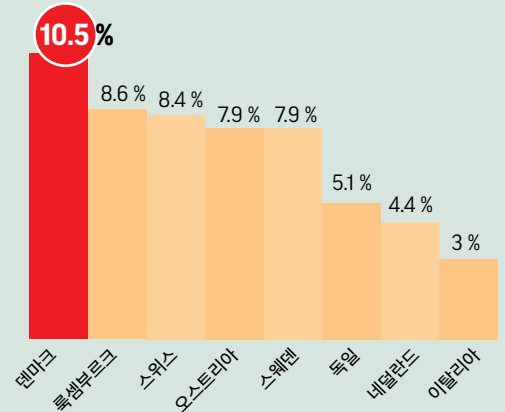
덴마크 - 세계 최고의 유기농 국가

덴마크는 몇 년째 전 세계 유기농 식품 생산 부분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덴마크 유기농 제품은 민간 소비자 및 전문 구매자 모두가 애용하고 선호하는 라벨이며 이는 덴마크 유기농 제품의 가치 사슬 전체의 혁신과 대량 생산을 가능케 했다.

오늘날, 덴마크의 유기농품 소매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다. 덴마크는 유기농 식품 소비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소매업 중 유기농 제품 점유율 (2016)



출처: FiBL-AMI 설문조사 2018 및 덴마크 통계 2018

세계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덴마크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인간의 소비를 위해 생산된 음식물의 1/3이 가치 사슬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다. 이는 양으로 따졌을 때 연간 약 13억 톤에 달하는 양이다. 덴마크의 푸드 클러스터는 이미 식량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냉동 체인의 운영 혹은 식품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성분에 대한 기술의 개발 등이 있다.

이는 덴마크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협력 활동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

덴마크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